

은사적 성모신심 세미나

-Charismatic Devotion to Mary Holy Mother Seminars-

K S C 편찬 : 2002년 5월 1일, 개정 : 2004년 4월 20일

참고한 도서

The Life in the Spirit Seminars

The Word of God Community

풍성한 신앙생활을 위한 성모신심 세미나

서울 불모임 엮음

KSC

가톨릭 성령은사적 쇄신 미주 한인봉사위원회

Korean Service Committee of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in the Americas

MOM

Mission of Mary

2004년 5월 1일 간행

차례

성모 신심 미사	4
개회 미사	4
평화의 모후 복되신 동정 마리아	4
봉헌 미사	8
주님 봉헌 축일	8
파견 미사	13
화해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13
소개 강의	17
1. 세미나를 하는 이유	17
2. 하느님의 인류구원 계획과 성모 마리아	17
3. 나와 성모님과의 관계	17
4. 성모 신심의 특성	17
5. 나의 어머니	17
6. 봉헌	17
제 1강의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이 택하신 마리아	19
1. 성모 마리아의 신원-하느님 삼위와의 삼중 관계	19
2. 나의 어머니가 되신 마리아	20
3. 천상의 모후-마리아	20
제 2강의 구원, 구세사에 나타난 성모님의 역할	21
1. 구세주를 낳아 기르시고, 함께 고난을 당하신 성모님	21
2. 우리를 예수님께 이끄시고, 전구하시는 성모님	21
3. 우리의 원수-악마의 세력을 꺾으시는 성모님	22
4. 예언자이신 성모님	22
제 3강의 새 생명, 성모 신심을 통한 풍성한 신앙생활	23
1. 믿음의 전형	23
2. 우리의 어머니	23
3. 성모신심의 유의점	24
제 4강의 하느님께로 돌아섬, 하느님께 봉헌	25
1. 봉헌의 의미	25

2. 봉헌을 위한 준비.....	25
3. 봉헌의 자세.....	25
4. 하느님의 은총-구원의 성사-그리스도인.....	26
5. 회개의 의미.....	26
제 5강의 성령 안의 세례를 위한 기도, 봉헌 예절.....	27
우리 자신(Spirit, Soul, Body)과 우리의 삶(Life)을 하느님께 봉헌 함.....	27
봉헌 예절 (미사).....	27
제 6강의 성장, 성모님과 함께 가는 성화의 길.....	29
1. 성령의 이끄심 (현존).....	29
2. 성모님을 따라서 (모범).....	29
3.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믿음).....	30
4. 말씀을 실행하라 (증거).....	30
제 7강의 변화, 성화의 전형, 성모 마리아.....	31
1. 모든 덕의 모범이신 성모님.....	31
2. 인생 길의 모범이신 성모님 (루가 2: 51-52).....	32
3. 우리 어머니가 되시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성모님..	32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봉헌기도.....	33

성모 신심 미사

개회 미사

평화의 모후 복되신 동정 마리아

입당송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 그 이름은
평화의 왕이라 불리리라.

본기도

하느님, 외아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셨으니, 평생 동정
이신 복되신 마리아의 전구로 저희가 바라는 평화를 주시어, 저희가
평화로운 한 가족을 이루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언제나 일치하게 하
소서. 성부와 성령과....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9; 1-3, 5-6)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쳐 올 것입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 같고, 전리품을 나눌 때
의 기쁨 같아, 그들이 당신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질 멍에와 어깨에 멍 장대를 부러뜨리시고, 혹사하는 자
의 채찍을 꺾으실 것입니다. 미디안을 쳐 부수시던 날처럼, 꺾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 그 어깨
에는 주권이 메어 지켰고,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가, 용사이신 하느
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아 주권을 행사하여, 그 국권을 강대하게 하고
끝없는 평화를 이루며, 그 나라를 법과 정의 위에 굳게 세우실 것입

니다. 이 모든 일은 만군의 주님께서 정열을 쏟으시어,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루실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평화를 말씀하시도다.
- 주 하느님 말씀을 제가 듣고 싶사오니, 당신의 백성과 성도들에게 정녕 평화를 말씀하시나이다.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정녕 가까우니, 당신의 영광이 우리 땅에 계시게 되리라. ◎
- 자비와 충성이 마주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입 맞추리라. 땅에서 충성이 움터 나오면,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 보리라. ◎
- 주님께서 행복을 내려 주시면, 우리 땅은 열매를 맺어 주리라.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 나가면, 구원은 그 걸음을 따라 가리라.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나이다.
- ◎ 알렐루야.

복음

†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26-38)

그때에 하느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시오. 주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히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마시오. 마리아. 당신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

을 예수라 하시오.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일러 주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당신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친척 엘리사벳을 보시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들 하였지만,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진 지가 벌써 여섯 달이나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물기도

주님, 평화의 모후이며 평생 동정이신 복되신 마리아를 공경하고, 주님께 화해의 제사를 드리며 청하오니, 주님의 가족들에게 일치와 평화의 선물을 자비로이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감사송 <평화의 모후이며 사도이신 그리스도의 어머니>

거룩하신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기념하며 주님을 찬미하고 현향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마리아께서는 주님의 겸손한 종으로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소식을 들으시고 평화의 임금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의 몸으로 잉태하셨나이다. 마리아께서는 또한 충실한 어머니로서, 성자께서 저희 구원을 위하여 당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신 십자가 곁에 곳곳하게 서 계셨나이다. 또한 마리아께서는 그리스도의 제

자로서 평화의 사도가 되시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성부께서 약속하신 일치와 광화의 성령, 사랑과 기쁨의 성령을 기다리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기쁨에 넘쳐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

영성체송

하느님이며 사람이신 아들을 동정녀께서 낳으시니, 하느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가장 낮은 것을 가장 높은 것과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돌려 주셨도다.

영성체후 기도

주님, 저희가 평화의 모후이신 복되신 마리아를 기념하며 외아들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저희에게 사랑의 정신을 주시어, 성부께서 남겨 주신 평화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게 하소서. 우리 주....

봉헌 미사

주님 봉헌 축일

입당송

하느님,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비를 다시 생각나이다. 하느님, 당신의 이름처럼, 당신의 찬송이 땅 끝까지 미치고, 당신의 오른손은 정의가 가득하시나이다.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지존하신 어전에 엎드려 간절히 비나이다. 독생 성자께서 오늘 저희와 같은 사람으로 성전에서 봉헌되셨으니, 저희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저희 자신을 봉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제1독서

말라기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1-4)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나 이제 특사를 보내어 나의 행차 길을 닦으리라. 그는 너희가 애타게 기다리는 너희의 상전이다. 그가 곧 자기 궁궐에 나타나리라. 너희는 그가 와서 계약을 맺어 주기를 기다리지 않느냐?

보아라. 이제 그가 온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는 날, 누가 당해 내랴? 그가 나타나는 날, 누가 버텨 내랴?

그는 대장간의 불길 같고, 빨래터의 잿물 같으리라. 그는 자리를 잡고 앉아, 풀무질하여 은에서 쇠똥을 걸러 내듯, 레위 후손을 깨끗하게 만들리라. 그리하면 레위 후손은 순금이나 순은처럼 순수하게 되어 올바른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게 되리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치는 제물이 옛날 그 한 처음처럼 나에게 기쁨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 만군의 주님이야말로 영광의 임금이다.
- 성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임금님께서 들시려 하시나니. ◎
- "영광의 임금님이 누구이신고?" "굳세고 능하신 주님이시다. 싸움에 능하신 주님이시다." ◎
- 성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임금님께서 들시려 하시나니. ◎
- "영광의 임금님이 누구이신고?" "만군의 주님이야말로 영광의 임금이다." ◎

제2독서

히브리 공동체에 보낸 바오로 사도의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2, 14-18)

자녀들은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도 그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싸여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보살피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점에서 당신의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롭고 진실한 대사제로서 하느님을 섬길 수 있었고, 따라서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친히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은 모든 사람을 도와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이방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옵니다.
- ◎ 알렐루야.

복 음

†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22-40<또는 2,22-32>)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예수의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누구든지 첫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려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율법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정결례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 주셨던 것이다.

마침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 부모가 첫아들에 대한 율법의 구정을 기키려고 어린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좋은 평안히 눈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분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찢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파누엘의 딸로서 아셀 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은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자 예언자가 있었다. 그는 결혼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어 여든네 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없이 단식과 기도로써 하느님을 섬겨 왔다. 이 여자는 예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왔다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이 구원될 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고향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날로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 봉헌예절 안내)

+ 봉헌예절

예물 기도

하느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려고 티 없는 어린양으로 자신을 봉헌한 독생 성자의 제사를 받아들이셨듯이, 교회가 봉헌하는 이 제물도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우리 주.....

감사송 <주님의 봉헌 신비>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성전에서 봉헌되신 영원하신 성자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광과 이교 백성들의 빛으로 밝혀지셨으니, 저희도 하느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를 기꺼이 영접하며, 천사들과 성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

영성체송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으며,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나이다.

영성체후 기도

시므온의 기대를 이루어 주신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에게 주님의 은총을 풍부히 내리시고, 시므온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파전 미사

화해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입당송

주님께서는 자애롭고 불쌍히 여기시며, 역정에 더디시고 사랑이 지극하시오이다. 주님께서는 온갖 것을 선으로 대하시고, 일체의 조물들을 어여뵈 여기시나이다.

본기도

하느님, 성자의 고귀한 피로 세상과 화해하시고, 성모를 십자가 곁에 죄인들의 화해자로 세워 주셨으니 저희가 어머니의 전구로 저희 죄를 용서 받게 하고서. 성부와 성령과....

제1독서

†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2서 말씀입니다. (5; 17-21)

형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다 하느님께로 부터 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워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해 주셨고 또 사람들을 당신과 화해시키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인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이치를 우리에게 맡겨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그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이것은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를 시켜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으로 부터 무죄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내 안의 온갖 것도 그 이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당신의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 네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낮게 하시니, 죽음에서 네 생명 구하요 내시고, 은총과 자비로 관을 씌워 주시는 분. ◎
- 주님께서는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매우 인자 하시도다. 꾸밈이심이 오래 가지 않으시고, 앙심을 끝끝내 아니 품으시도다. ◎
- 아버가 자식을 어여뻐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그 섬기는 자들을 어여뻐 여기시나니, 당신께서는 우리의 됴됨이를 알고 계시며, 우리가 티끌임을 아시는 탓이로다. ◎
- 주님의 자비만은 언제나 한결 같이당신을 섬기는 자에게 계시도다. 그 후손위 후손에 까지 당신의 정의는 계시도다. 당신의 계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계약의 표적이니, 나와 세상 모든 사람 사이에 내가 세웠노라.
- ◎ 알렐루야.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9; 25-27)

그때에 예수의 십자가 밑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클레오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먼저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는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하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예물기도

주님, 화해와 찬미의 희생 제물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죄인들의
피난처인 복되신동장 마리아의 전구로, 저희 죄를 자비로이 용서하
시고, 주저하는 마음을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감사송 <죄인들의 피난처시며 화해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녀>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모든 사람 안
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자비를
찬양함이 참으로 마당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께서서는 한 없이 선하시기에, 잘못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다시 사랑하도록 부르시나이다. 주님께서서
는 죄를 모르시는 복되신 동정녀에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을 주시고, 누구나 그의 모성애를 바라보고는 그를 찾아가 주님의
용서를 청하고, 그의 영신적 아름다움을 바라보고는 죄의 더러움을
멀리하도록 노력하며, 그의 말씀과 모범을 목상하고는 성자의 계명
을 지키기로 다짐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흠송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
다.

거룩하시도다 !.....

영성체송

마리아님, 영광과 찬미 받으소서.

정의의 태양이신 우리 하느님 그리스도, 당신에게서 태어나셨도다.

영성체후 기도

주님, 저희가 화해의 성사로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로 자비의 은총을 저희에게 베푸시고, 영원한 구원의 상급도 주소서. 우리 주....

소개 강의

1. 세미나를 하는 이유

성모님을 잘 알고 바른 성모신심을 실천하며, 성모신심을 이웃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2. 하느님의 인류구원 계획과 성모 마리아

마리아는 하느님의 특은을 입어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어 당신에게만 주어진 유일무이한 위치에서 예수님의 인류구원 사업에 절대적인 협력자가 되셨습니다.

3. 나와 성모님과의 관계

나의 어머니가 나의 육신적 탄생을 위하여 해산의 진통을 했듯이, 성모님께서 나의 영생, 영신적 탄생을 위하여 해산의 진통을 하신 어머니임을 생각하고, 사도 요한이 하였듯이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로 모시고, 성모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 예수님과 더욱 깊은 친교를 가지게 됩니다.

4. 성모 신심의 특성

하느님은 모든 신심의 궁극적 대상이며, 하느님과 연관된 사람이나 천사 그 밖에 다른 하느님의 신비에 관련된 피조물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결국은 그들과 더불어 하느님에 대한 경신(흠숭)을 증진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모신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성모신심은 하느님 삼위와 기묘한 관계로 연관된 전무후무한 마리아의 성심에 일치하는, 우리 구원의 본질적인 신비에 직결된 신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느님에게 대한 경신(흠숭) 다음으로 주요한 신심입니다.

5. 나의 어머니

우리는 성모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 중 혹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 세미나를 통하여 성

모신심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성모님께 대하여 잘못된 신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는 올바른 신심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성모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욱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성모님이 ‘나의 어머니’ 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6. 봉헌

우리가 성모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다음 순서에 따라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어머니품 안에서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봉헌 기도 : P.33)

- 제1강의: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이 택하신 마리아
- 제2강의: 구원/ 구세사에 나타난 성모님의 역할
- 제3강의: 새 생명/ 성모님을 통한 풍성한 신앙생활
- 제4강의: 하느님의 은총을 받음/ 하느님께 봉헌
- 제5강의: 성령 안의 세례를 위한 기도/ 봉헌 예절
- 제6강의: 성장/ 성모님과 함께 가는 성화의 길
- 제7강의: 변화/ 성화의 복음적 전형, 성모 마리아

제 1강의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이 택하신 마리아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요한 3: 16)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 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해 주신 덕분입니다.” (루가 1: 48)

하느님께서 인류구원을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하여 나자렛 동네에 사는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하셨기에 이분은 하느님의 은총을 입은 유일무이한 여인이 된다. 이제 우리는 마리아와 하느님(성부, 성자, 성령)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느님이 택하신 여인-성모님의 고유한 신원을 알아 볼 수 있다.

1. 성모 마리아의 신원-하느님 삼위와의 삼중 관계

(1) 하느님-성부의 지극히 사랑하는 딸이신 마리아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잉태 첫 순간부터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예견된 공호와 전능하신 하느님의 유일무이한 은총의 특전으로 말미암아 원죄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보전되었다.” (비오 9세의 성모 무염시대 교리 선포문에서, 1854년)

(2) 하느님-성자의 모친이신 동정 마리아

“엘리자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큰 소리로 외쳤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 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루가 1: 41-43)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마태오 1: 23)

(3) 하느님-성령의 궁전이신 마리아

“천사는 마리아에게로 가서 ‘기뻐하소서, 은총을 입은 이여,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루가 1: 27)

“성령이 당신에게 내려오실 터이니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당신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루가 1: 35)

2. 나의 어머니가 되신 마리아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
머니에게 ‘부인, 보십시오. 부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시오. 당신의 어머니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 그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요한
19: 26-27)

3. 천상의 모후-마리아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다. 한 여인이 태양을 입었는데,
달은 그 발밑에 있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이 있었다.”
(묵시록 12, 1)

제 2강의 구원, 구세사에 나타난 성모님의 역할

“그 분(그리스도)은 우리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1 베드 2: 24)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서 있었다.” (요한 19: 25)

하느님-성부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성자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택하셨다. 그리하여 구세주 예수를 성령의 힘으로 잉태하신 성모님의 역할은 우리 인류 구원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것이다.

1. 구세주를 낳아 기르시고, 함께 고난을 당하신 성모님

“ ‘보라, 동정녀가 몸가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하였다.” (마태오 1: 23)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고 보시오. 이 아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며, 또 아기는 배척 당하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혼을 칼이 꿰뚫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 (루가 2: 34-35)

2. 우리를 예수님께 이끄시고, 전구하시는 성모님

“그분의 어머니는 시종꾼들에게 ‘그가 무엇이든지 당신들에게 이르는 대로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요한 2: 5)

“이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부인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도 함께 있었다.” (사도행전 1: 14)

3. 우리의 원수-악마의 세력을 꺾으시는 성모님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창세기 3: 15)

4. 예언자이신 성모님

“보라, 이제부터 만세가 나를 복되다 하리니, 권능 떨치는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도다.” (루가 1: 48-49)

성모님은 세계 도처에서, 계속 오늘도 발현하시어 우리 인류구원-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애타게 당신 자녀들의 기도를 호소하고 계신다.

제 3 강의 새 생명, 성모 신심을 통한 풍성한 신앙생활

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갈릴래아 나자렛에서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 와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 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 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마르코 1, 9-11)

“하느님은 ... 외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요한 3: 16)

1. 믿음의 전형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 되십니다.” (루가 1: 45)

구원사에서 성모님은 하느님의 유일 무이한 은총을 입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삼중의 고유한 관계를 갖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전무후무한 협력자가 되셨다.

“그분의 어머니는 시중꾼들에게 ‘그가 무엇이든지 당신들에게 이르는 대로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요한 2: 5)

성모님은 천주 성부에 대한 믿음으로 성자의 어머니가 되시고, 성자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하느님께 가까이 인도하여, 보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어머니이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첫번째 기적을 갈릴래아 지방 가나에서 행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요한 2: 11)

2. 우리의 어머니

“그 제자에게는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집에 모셨다.”

성모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외아들 예수님을 가슴에 묻고, 아드님이 넘겨주신 제자-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고 자애로운

사랑으로 우리 한사람 한사람을 주님께 이끌어 생명(구원)으로 초대하신다.

3. 성모신심의 유의점

“예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시고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고 말씀 하셨다.” (마르코 3: 34-35)

성모님은 새벽을 기다리는 자에게 어두움을 밝히는 여명이며, 캄캄한 밤에 무변 해상에서 항해하는 자를 안전하게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샛별과도 같다.

우리는 하느님(성삼위)을 흠송하며, 성모님을 공경합니다. 성모님은 비록 하느님의 특은으로 천상의 영광을 누리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모님께는 흠송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제 4강의 하느님께로 돌아섬, 하느님께 봉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요한 4 ; 14)

1. 봉헌의 의미

봉헌한다(Consecrate)는 말은 ‘축성한다’는 뜻으로, 세속에서 끌어내어 죄와 악의 힘으로 부터 해방하고 정화하는 것이며, 은총으로 채워 거룩하게 됨을 뜻한다.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로마서 12: 1-2)

2. 봉헌을 위한 준비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마르코 1: 15)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요한 1: 10)

3. 봉헌의 자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 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은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한 4: 18)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 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실 것이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루가 1: 35, 37-38)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 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필립비 4: 6-7)

4. 하느님의 은총-구원의 성사-그리스도인

믿음 (마르코 16: 16)

회개 (사도행전 2: 38)

세례 (마르코 16: 16)

5. 회개의 의미

회개(회심/회두)는 하느님께로 돌아 오는 방향의 전환(turning)이며, 하느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제 5 강의 성령 안의 세례를 위한 기도, 봉헌 예절

“성 안에 들어 온 사도들은 자기네가 묵고 있던 이층방으로 올라갔는데 그 일행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필립보, 토마, ... 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여자와 예수의 형제들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에만 힘썼다.” (사도행전 1: 13-14)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사도행전 2,1-4)

“바오로가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러자 그들은 이상한 언어로 말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사도행전 19: 6)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가 1: 38)

우리 자신(Spirit, Soul, Body)과 우리의 삶(Life)을 하느님께 봉헌함.

우리의 어머니, 정결하신 성모님께서 흠 많은 우리를 어머니의 사랑으로 정화시켜서 하느님께 봉헌하신다. 주님께서 어머니를 통하여 봉헌된 우리를 받아 기뻐하시고, 세례성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생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애로운 어머니와 함께 그 생명 안에서 행복한 새 삶을 살게 하신다.

봉헌 예절 (미사)

봉헌 준비

봉헌예절은 말씀의 전례나 성모신심 미사를 봉헌하면서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사이에 할 수 있다. (준비물: 성수와 축성할 성물, 봉헌예물, 봉헌문 작성)

말씀의 전례

강론

성물 축성

예물 봉헌

세례서원 갱신과 봉헌문 합송

개인별 또는 그룹별 봉헌

봉헌기도 - 안수 기도

성물 또는 촛불 수여

성찬의 전례

제 6강의 성장, 성모님과 함께 가는 성화의 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 15: 5)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루가 1: 28)

“성령이 당신에게 내려 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실 것입니다.” (루가 1: 35)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가 1: 38)

1. 성령의 이끄심 (현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 가야 합니다.” (갈라디아 5: 25)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였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자의 어머니가 되셨으며 성가정에서 시작하여 항상 구세주의 구원사업에 완전히 동참하셨고, 오순절에는 제자들의 어머니로서 성령 강림을 맞으셨다. 성모님은 평생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느님(성삼위)과 완전히 일치하신 분이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필립비 2: 13)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 생활(삶) 안에서도 활동하신다.

2. 성모님을 따라서 (모범)

우리는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과 일치하기 위하여, 성모님의 삶을 묵상하며 본 받아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 가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가면 안전하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예수는 부모를 따라 나자렛으로 돌아 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 속에 간직하였다.” (루가 2: 51)

3.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믿음)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 8: 31-32)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루가 1: 45)

4. 말씀을 실행하라 (증거)

“너희는 나에게 주님, 주님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실행하지 않는냐?” (루가 6: 46)

“예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시고 ...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말씀 하셨다.” (마르코 3: 34-35)

제 7강의 변화, 성화의 전형, 성모 마리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들어 주실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요한 15: 16-17)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 18: 19)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선 우리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구원의 길로 들어 가는 것이며 우리가 점차 주님을 닮아가는데 있다.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미와 영광을 받으신다. 결국 모든 신심의 궁극 목적은 하느님께 보다 큰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데 있다.

우리가 구원-성화될 때 하느님이 기뻐하시는데 이는 바로 우리가 창조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순결한 사람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성화도 우리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므로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은총이다.

과연 성모님은 하느님의 간택으로 은총을 입어 창조된 본래의 모습대로 순결하게 태어나시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성자의 어머니가 되셨고, 평생 아드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의 구원사업에 동참하셨으며 아드님의 유언에 순종하시어 연약한 제자들의 어머니가 되셨고 성령 강림의 중심에서 다시 신생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 분이다.

1. 모든 덕의 모범이신 성모님

1) 성모님은 향주 삼덕(믿음, 소망, 사랑)의 모델이시다. (1 고린토

13: 13)

2) 성모님은 모든 윤리 덕의 기초가 되는 겸덕(겸손)의 모델이시다.
(루가 1: 46-55)

3) 성모님은 복음 삼덕 (청빈, 정결, 순명) 의 모델이시다.

2. 인생 길의 모범이신 성모님 (루가 2: 51-52)

우리가 하느님께서로 나아가는 인생 여정은 일반성소인 결혼(가정) 생활과 특수 성소인 봉헌 생활로 나뉘는데, 성모님은 성가정을 통하여 가정생활의 모범이 되시고, 또한 평생 동정으로 하느님께 봉헌하여 봉헌생활-동정생활의 모범이 되신다.

3. 우리 어머니가 되시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성모님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요한 19: 26)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구원-성화를 위하여 선택하신 ‘우리 어머니’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께서는 지상에 있는 자녀들을 모두 하늘나라로 이끄실 때까지 우리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일치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자애스러운 품에 안겨야 하겠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드리는 봉헌기도

(오순절에 제자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Act 1 and 2)

@ 우리 어머니, 당신께서 함께 하시니 저희는 주님의 옥좌입니다.

● 성부의 딸이며 성자의 어머니시요, 성령의 궁전이신 마리아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당신을 우리 어머니로 주셨으니

이제 저희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

● 나의 어머니, 인류의 어머니 마리아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겸손과 사랑으로 순종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

● 하느님의 모상, 나의 어머니 마리아여!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에게 성령님의 권능과 함께 성자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저와 저의 모든 것, 제가 행한 바 모두를 완전히

당신 안에서 당신과 함께 성령님께 봉헌합니다. @

● 평생 동정이신 나의 어머니 마리아여!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의 신비와 오순절 이층 방 성교회로

이끄실 때에 함께 하소서. @

● 구세주의 어머니 마리아여,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당신이 성자를 품게 하셨던 그 순간처럼

예수님이 저희에게 보내 주시는 성령강림의 영광스러운 이 시간에

저의 심령은 주님의 옥좌입니다. @

(KSC: 2007 2 월 19 일/ 과달루페 순례중에)

은사적 성모신심 세미나 지침서

Charismatic Devotion to Mary Holy Mother Seminars

발행

가톨릭 성령 은사적쇄신 미주 한인 봉사위원회
Korean Service Committee of
the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in the Americas

편찬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미주 한인 봉사위원회 홍보센터
KSC Communication Center
<http://kscusa.org>